

2022년 9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2. 11. 2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9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.7% 증가

- 1~9월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, 특히 자동차(새시 포함)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4.6% 급증
- 9월 무역수지는 847억 달러로 전월 대비 50억 달러 이상 증가

○ (수입) 9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0.3% 증가

- 1~9월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누적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으나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금액 측면의 수입성장 기여도는 약화됨
- 1~9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2% 증가하였으며, 9월 중국의 대러 무역 적자는 전년 동월대비 894.1% 급증

1 수출입 동향

- 9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5.7% 증가한 3,227억 6천만 달러(약 457조 원), 수입액은 0.3% 증가한 2,380억 1천만 달러(약 337조 원), 무역수지는 847억 4천만 달러(약 120조 원) 흑자를 기록
- 9월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한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, 9월 무역수지는 전월 대비 50억 달러(약 7조 원) 이상 증가하였고 1~9월 기준 무역수지는 6,451억 5천만 달러(약 913조 원)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51.6% 증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



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1	'22.1~3월 (1Q누계)	'22.1~6월 (1-2Q누계)	'22.8월	'22.9월 (당월)	'22.1~9월 (1-3Q 누계)
수 출	33,630 (29.8)	8,190 (15.5)	17,283 (13.9)	3,149 (7.1)	3,227.6 (5.7)	26,985.9 (12.5)
수 입	26,871 (30.1)	6,640 (10.6)	13,487 (5.8)	2,355 (0.3)	2,380.1 (0.3)	20,534.4 (4.1)
수 지	6,759	1,550	3,796	794	847.4	6,451.5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9월 수출입총액은 5,607억 7천만 달러(약 794조 원)로 3.4% 증가했으며,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8.7%, 12.5%, 4.1% 증가세를 보임
 - (수출) 9월 수출증가율(5.7%)는 시장예상치(4.1%)를 상회하였으나 10%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던 5~7월에 비하면 현저히 둔화됨
 - 1~9월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누적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, 특히 자동차(새시 포함)품목은 전년 동기대비 64.6% 증가. 중국의 9월 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31% 증가
 - 해외 방역정책이 점차 완화되면서 중국산 캐리어 등 여행 관련 품목의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
 - (수입) 1~9월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누적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원자재가격이 하락하여 금액측면의 수입성장 기여도는 약화됨
 - 9월 수입증가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, 부동산 침체로 인한 일부 원자재 수요 억제 반영
 - 1~9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2% 증가하였고, 9월 중국의 대러시아 수입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중국의 대러 무역 적자는 전년 동월대비 894.1% 급증
- 중국의 내수회복이 더디고 대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향후 낮은 수입증가세를 유지하거나, 수입은 반도체·집적회로·첨단기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점차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
 - 중국의 내수가 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지속 영향으로 해외생산이 제한되면서 중국의 수입 수요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
 -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 정책 기조하에 반도체 국산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, 점차 집적회로 및 반도체 수입은 둔화할 수 있음
 - 4분기 수출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高인플레이션 추세는 해외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수출상품이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있음
 - 중국 정부가 향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도시봉쇄가 수출입에 미치는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월 중국과 RCEP 회원국 간의 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21.3% 증가, 전체 수출액의 27.9% 비중을 차지하며 무역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- 1~3분기 민간기업(비중 50.2%), 외국 투자기업(33.5%), 국유기업(16.1%)의 수출입 총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4.5%, 2%, 15.1% 증가 - 3분기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27.4%로 3분기 GDP의 1.1%p 상승을 견인함 -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수입성장에서 금액의 기여도는 당분간 더욱 약화할 것이며, 소비 촉진 정책에 힘입어 내수 수입수요는 차츰 확대될 것으로 기대
	 중신증권 (中信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월 수출증가율은 5.8%로 10%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던 5~7월 대비 둔화됨 -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확대되어 9월 자동차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129% 증가하였으며 이는 글로벌시장에서의 중국 자동차 경쟁력 강화추세와 관련이 있음 - 해외 국가의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국 캐리어 등 여행용품 수출증가세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9월 가방 수출증가율은 27.9%를 기록함 -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업계가 위축되어 대미 가구 및 가전제품 수출은 감소 - 중국의 내수가 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지속 영향으로 해외생산이 제한되면서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- 특히 반도체 및 집적회로, 첨단기계의 수입이 크게 둔화하였으며 중국의 자체 생산 강화추세에 따라 향후 낮은 수입증가세를 유지하거나 점차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
	 차이신 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, 글로벌 수요약세, 금액기여도 하락영향으로 9월 수출 성장률은 둔화하였고, 중국 다운스트림 상품 수요 약세로 수입성장률도 전월과 동일 - 4분기 수출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추세는 해외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수출상품이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월 수출증가율은 예상치(4.1%)를 상회하였으나 4월 이후 가장 부진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입증가율은 예상치(1.0%)를 하회 - 최근 중국의 대북 방역용품 수출이 급증하여 9월 중국의 대북한 마스크 수출량은 8월 수출량(210만 개)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1,056만 개를 기록 - 9월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증가율은 21.2%로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, 중국의 전체 수출증가율인 5.7%를 크게 상회했고 양국 간 무역협력이 강화됨 - 대러시아 수입증가율은 55.2%로 수출증가세보다 더욱 가파름. 특히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22% 증가하여 서방의 행보와 달리 대러 수입의존도가 점차 높아짐 - 당분간 정부가 제로코로나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적어 향후 도시봉쇄가 수출입에 미치는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. 로이터는 올해 중국의 GDP예상치를 3.2%로 하향조정
	 블룸버그 (Bloomber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월 중국 수출이 위축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이 반영됨. 특히 9월 대미 수출이 11.6%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이 심화되었고, EU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 프랑스 수출 역시 각각 5.6% 7.6% 감소, 영국 수출도 11.8% 감소 - 한편 1~9월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 국가로의 수출액은 30% 이상 확대 -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 수출이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전기자동차 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1% 증가함 - 9월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7월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, 미중 갈등으로 인한 대만 반도체업계 주문감소 및 중국 경기침체 요인이 반영됨.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중국,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 무역 전망도 악화할 수 있음
	 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9월 대미 무역흑자는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.1% 감소하였고 8월의 무역흑자(377억 달러)보다도 낮았음 - 9월 중국의 러시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대러 무역 적자는 약 2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94.1% 증가함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2. 10. 26)

- (국가별 동향) ASEAN(누계 수출증감률 20.6%), 미국(8.9%) 및 EU(16.9%), 중남미(18.6%), 아프리카(12.9%)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액이 증가
(중국의 對미국 9월 당월 수출은 11.6% 감소)
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15.3%), 일본(6.5%)으로의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홍콩(△11.3%)은 감소하였고,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對베트남(6.6%) 수출액은 증가
- 수입의 경우, ASEAN(누계 수입증감률 5.7%), 중남미(6.5%)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EU(6.4△%), 일본(△7.6%), 호주 (△14.1%)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- 중국의 對대만 1~9월 누계수입은 0.8% 증가하였으나 9월만 놓고 보면 8.8% 감소, 對미국 1~9월 누계수입도 0.5% 증가하였으나 9월만 놓고 보면 4.6% 감소
- 중국의 對한국 1~9월 누계수입은 0.3% 감소하였고 9월 당월 수입도 9.3% 감소

< 9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1~9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	1~9월 누계증감률
1	*ASEAN	523	20.6	*ASEAN	380	5.7
2	미국	508	8.9	*EU	238	△6.4
3	*EU	470	16.9	대만	218	0.8
4	홍콩	306	△11.3	*중남미	213	6.5
5	*중남미	231	18.6	한국	180	△0.3
6	일본	152	6.5	일본	165	△7.6
7	*아프리카	149	12.9	미국	147	0.5
8	한국	136	15.3	호주	117	△14.1
9	베트남	128	6.6	러시아	107	51.6
10	인도	111	31.0	브라질	104	△1.9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4.3%), 2위 휴대폰(비중 3.8%), 3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3.5%)의 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0.9%, 6.7%, 9.4% 증가

-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1.5%)는 수량이 1~9월 누계 기준으로 12.8% 감소했으나 금액은 1.5% 증가
- 2위 원유(비중 8.5%)는 수량이 4.3% 감소했으나 금액은 글로벌 유가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% 증가. 3위 철광석 및 정광(비중 3.1%)은 수량과 금액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수량은 2.3% 소폭 감소, 금액 역시 31.9% 대폭 감소

< 9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9월 누계증감률	금액	1~9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97	0.9	4.3
2	휴대폰	7,915만 대	△9.9	172	6.7	3.8
3	의류 및 부자재	-	-	160	9.4	3.5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33억 개	△10.0	142	7.3	3.1
5	방직실 및 직물	-	-	121	8.7	2.7
6	플라스틱제품	-	-	93	13.3	2.0
7	가전제품	28,712만 대	△10.1	73	△10.0	1.6
8	강재	498만 톤	△3.4	70	27.8	1.5
9	자동차부품	-	-	69	9.8	1.5
10	자동차(새시 포함)	36만 대	51.6	63	64.6	1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9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9월 누계증감률	금액	1~9월 누계증감률	비중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476억 개	△12.8	391	1.5	11.5
2	원유	4,024만 톤	△4.3	288	47.0	8.5
3	철광석 및 정광	9,971만 톤	△2.3	104	△31.9	3.1
4	천연가스	1,015만 톤	△9.5	73	43.9	2.1
5	식량(곡류)	1,152만 톤	△10.5	71	12.3	2.1
6	대두	772만 톤	△6.6	55	16.2	1.6
7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50	△8.0	1.5
8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275만 톤	△12.0	47	△4.5	1.4
9	동광석 및 정광	227만 톤	8.8	46	7.2	1.3
10	자동차(새시 포함)	8만 대	△11.0	43	△0.6	1.3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9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의 49.4보다 소폭 증가한 50.1 기록, 생산자물가지수(PPI)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2.8%, 0.9% 상승
 - 9월 PMI는 3개월 만에 기준선(50)을 상회하였으며, 주요 원인에는 대기업 중심의 생산 확대, 제조업 경기 호전 등이 있음
 - 9월 CPI는 2.8%로 6개월 동안 2%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달걀·과일·육류 등 식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. 9월 PPI는 0.9%로 지난달 2%대에서 0%대로 하락하였으며 주요 산업재 중 철 금속 가격 하락, 시장 수요 약세 등의 영향이 반영됨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20	2021	'22. 상반기	7월	8월	9월	
경제성장률(%)	2.2	8.1	2.5	-	-	3.9(Q3)	
소매판매 증감률(%)	△3.9	12.5	△0.7	2.7	5.4	2.5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2.9	4.9	6.1	5.7	5.8	5.9	
산업생산 증감률(%)	2.8	9.6	3.4	3.8	4.2	6.3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(%)	51.9	50.3	50.2	49.0	49.4	50.1	
소비자 물가지수 CPI (%)	2.5	0.9	1.7	2.7	2.5	2.8	
생산자 물가지수 PPI (%)	△1.8	8.1	7.8	4.2	2.3	0.9	
실업률(기말, %)	5.2	5.1	5.7	5.4	5.1	5.5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444 (4.5)	1,735 (20.2)	1,124 (21.8)	115.7 (18.3)	144.9 (11.1)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2,165	32,502	30,173	31,041	30,549	30,290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74	6.4512	6.4810	6.7324	6.7949	6.9621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26 (△2.7)	1,629 (22.9)	814 (6.9)	132 (△2.5)	131 (△5.4)	134 (△6.5)
	수 입	1,089 (1.5)	1,386 (27.3)	772 (19.7)	138 (19.9)	135 (15.1)	127 (11.1)
	수 지	237	243	42	△5.9	△3.7	6.9

출처 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 주 : 9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